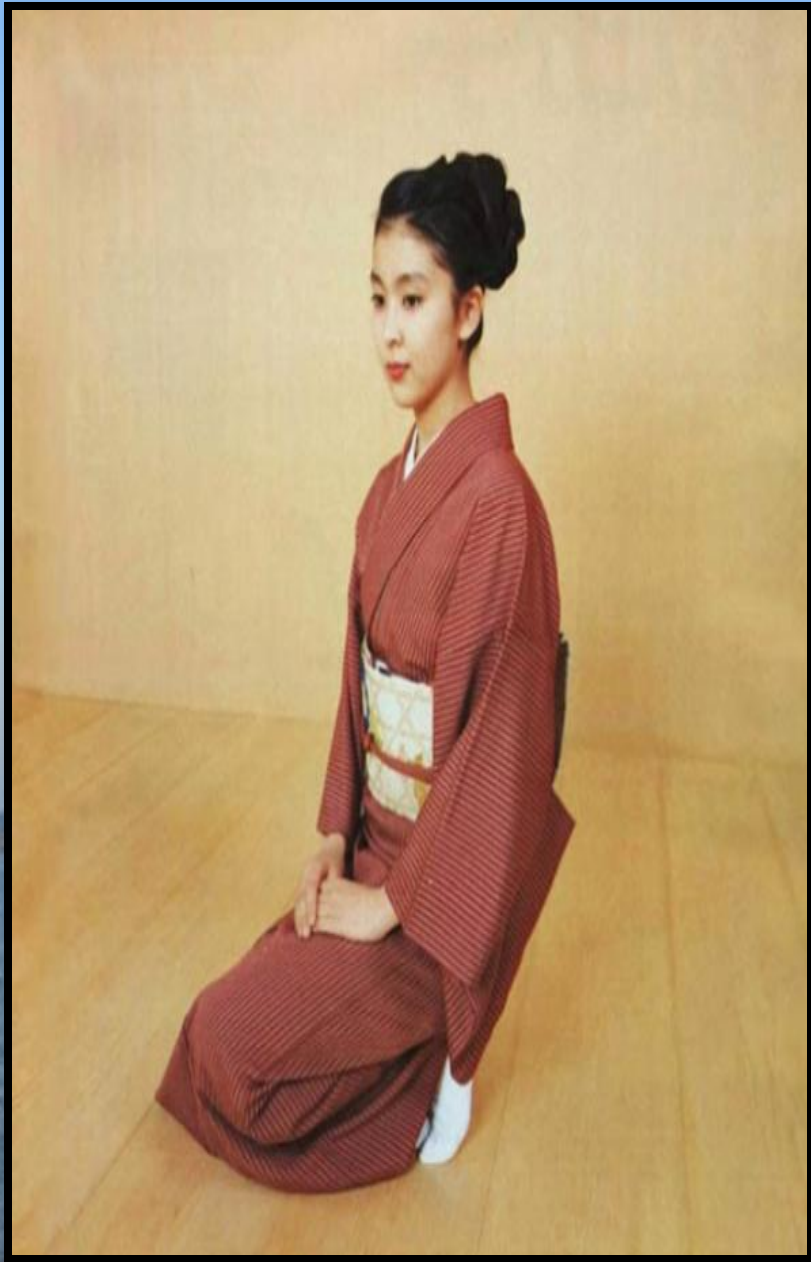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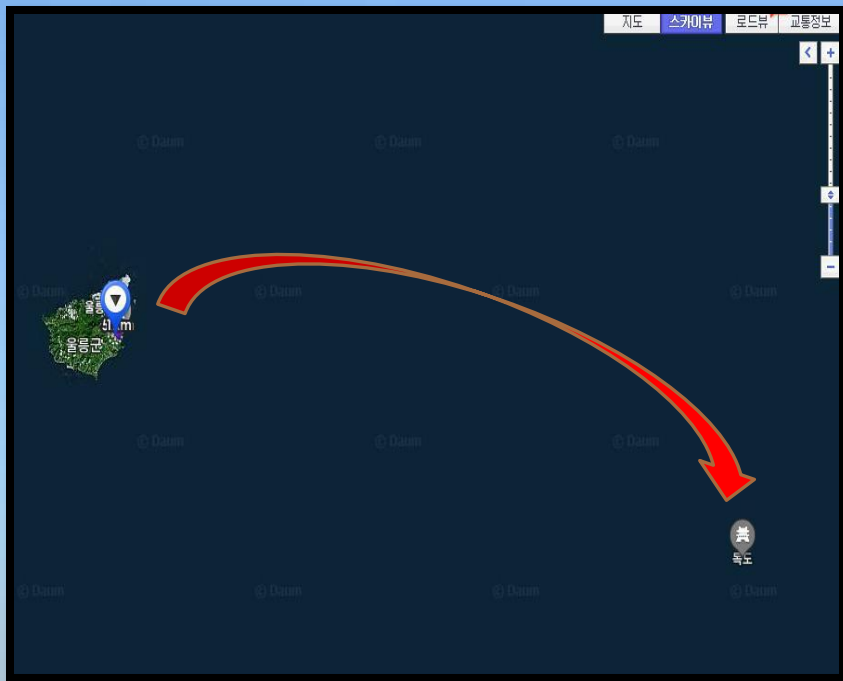


< 일본의 영토 확장과 축소 >

Loading











< 수업의 목표 >



과거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이
국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일본의 영토정책을 시기별
그 특징을 고찰해 봅시다.

< 수업 진행 순서 >

1. 영토 확장 야욕이 없었던 전근대 일본의 영토인식

2. 근대국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대두된 내셔널리즘에 의한 국경형성과정

3. 근대일본의 부국강병을 국가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강화된 내셔널리즘의 의한 영토확장 과정

4.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포츠담선언 등과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의 축소과정

5.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영토정책에 관한 고찰



< 전근대의 일본 영토 >

● 시기구분 : 고대 - 중세 - **근세** - 근대

●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일본은 근세 시대로 봉건적인 막번 체제로 되어있음.

- 막부 :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 무사 정권을 지칭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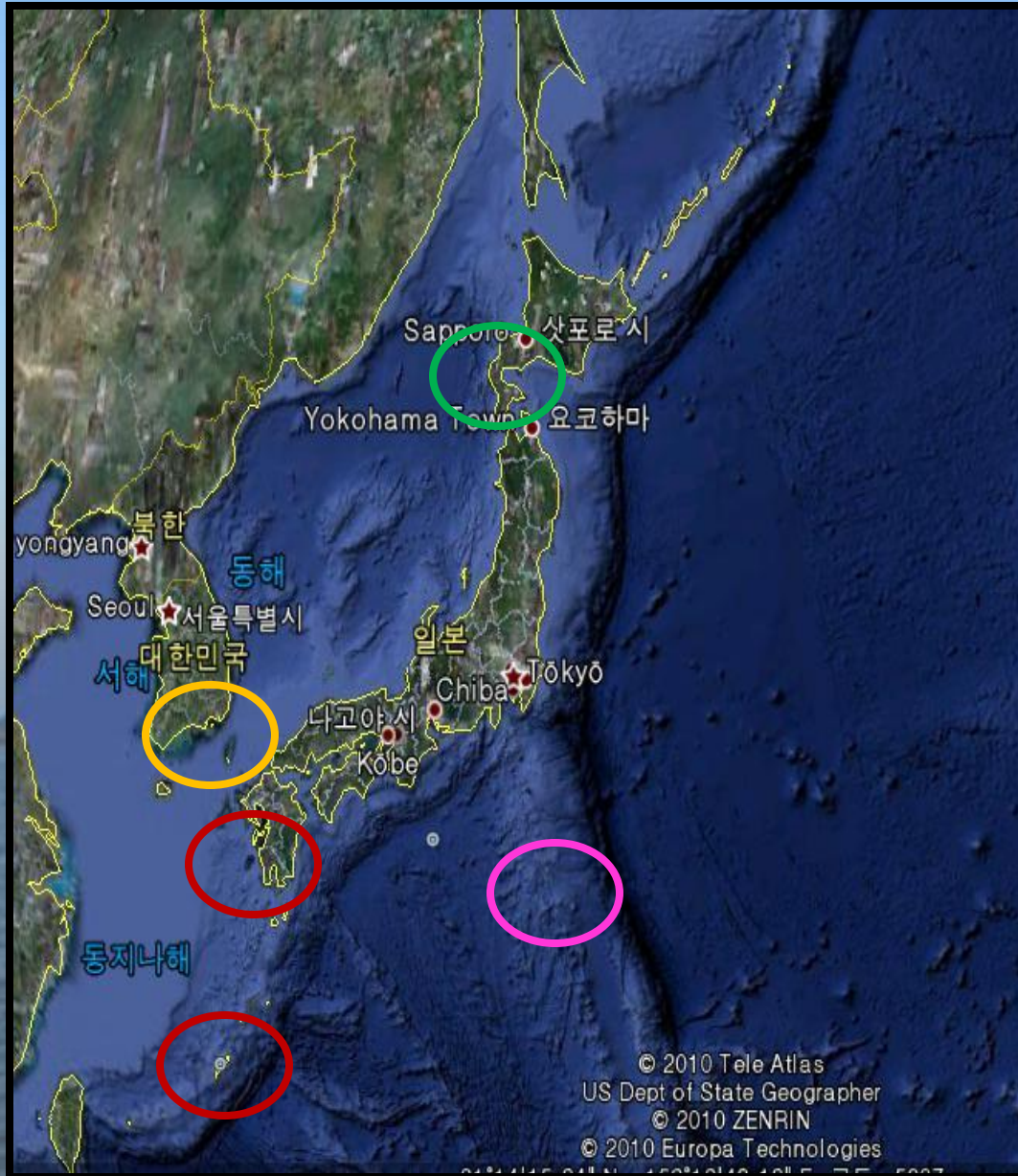
- 번 : 막부체제 하의 지방정부



막부는 번을 조종할 수 있는 막번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막부의 허락없이 대외관계를 경계함

쇄국령

● 일본의 변방



① 서남방에 사츠마번과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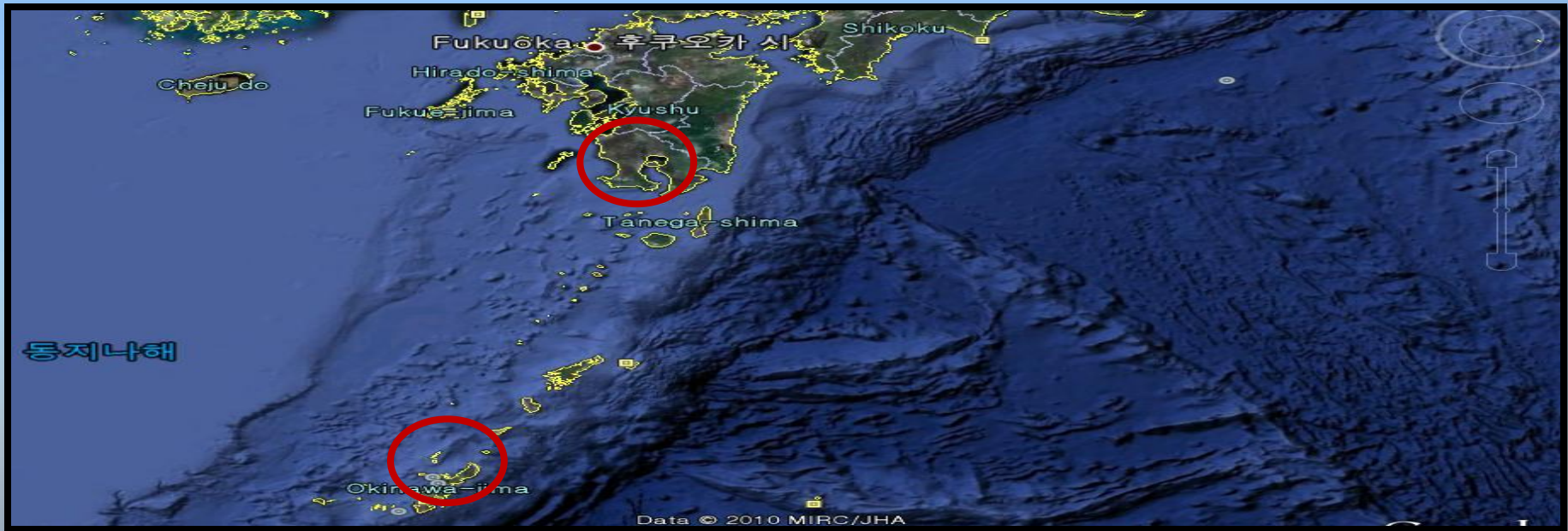
② 북방의 마츠마에 번과 아이누

③ 쓰시마 번과 조선

④ 남방의 오가사와라 군도

1) 사츠마 번과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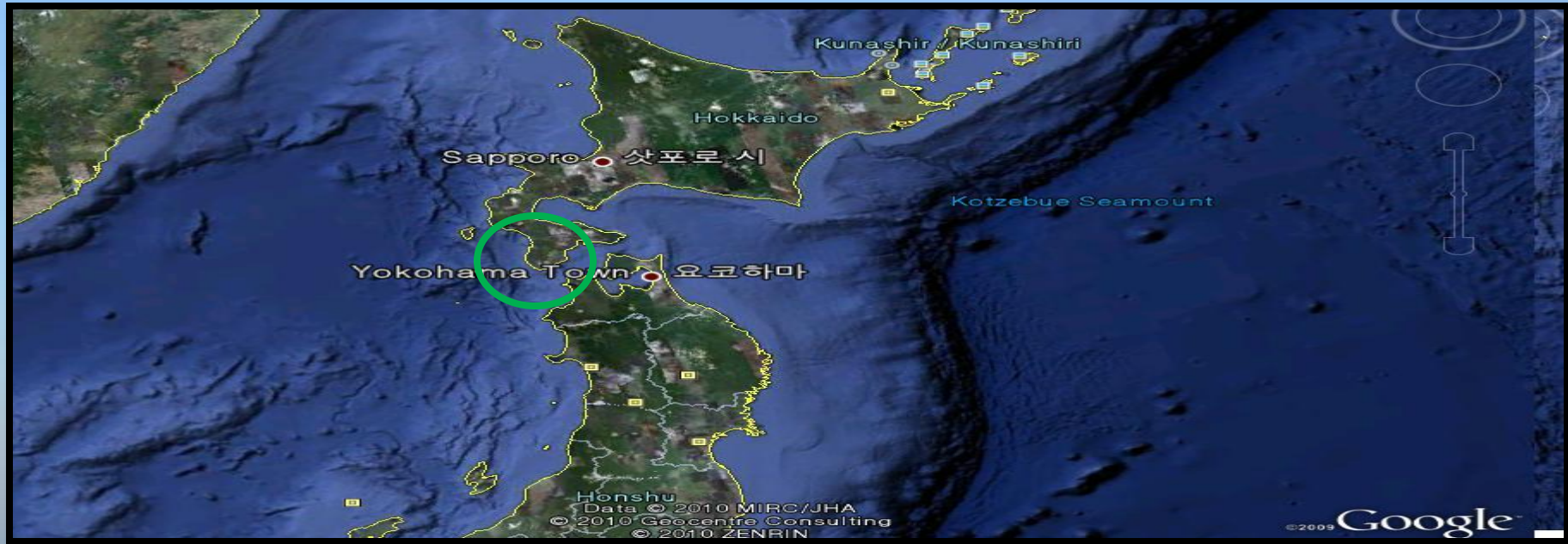
· 유구는 14c~16c 걸쳐 일본국가의 범위 밖에 존재한 나라이다.



- 1609년 사츠마 번이 유구를 침략하여 사츠마번에 종속되는 국가 됨
- 유구는 중국과도 독자적으로 교역을 하였고, 질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 유구가 사츠마 번과 막부와의 관계에 대해 정치적 내속관계보다는 경제적인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마츠마에 번과 아이누 민족

- 1456년 마츠마에 번이 홋카이도 남단의 아이누모시리를 침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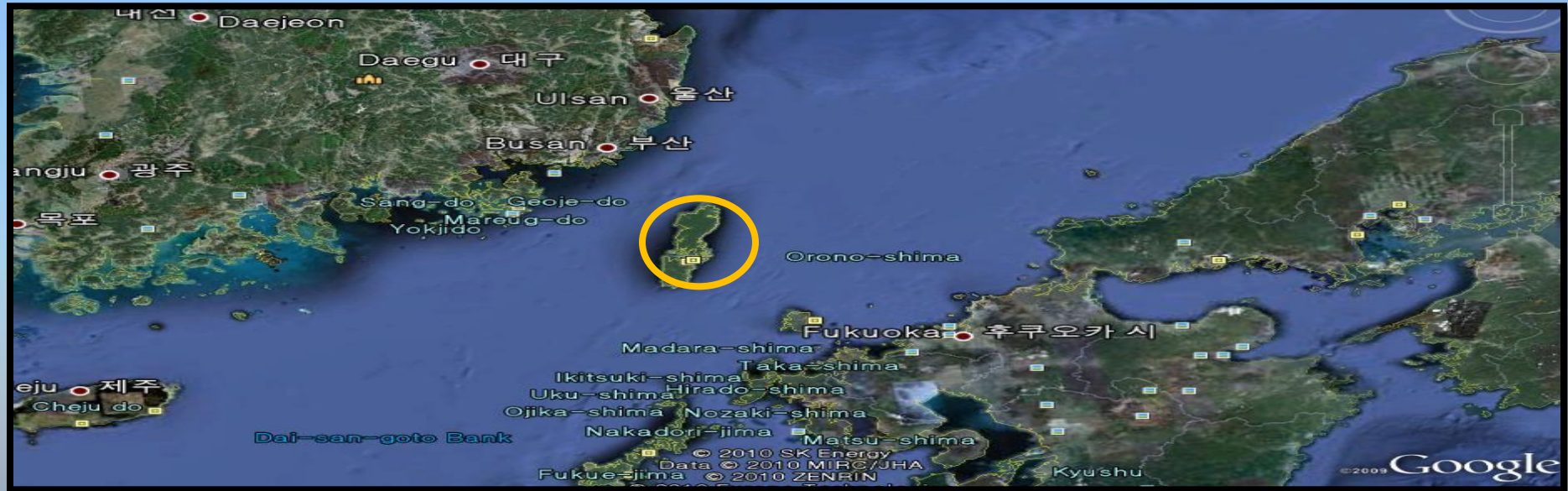
- 마츠마에 번이 세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막부의 쇄국정책으로 실패

러시아의 남하정책

- 이로 인하여 북방경계 의식을 갖게 되었고, 영토 야욕이 생겨남

3) 쓰시마 번과 조선

- 쓰시마 번은 열악한 지역환경때문에 경제적으로 조선에 의지하였다.



- 조선의 공도정책으로 울릉도 영유권을 주장 하였지만 막부가 조선의 영토로 인정을 하였으며, 조선은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전달하였다.

4) 오가사와라 군도와 도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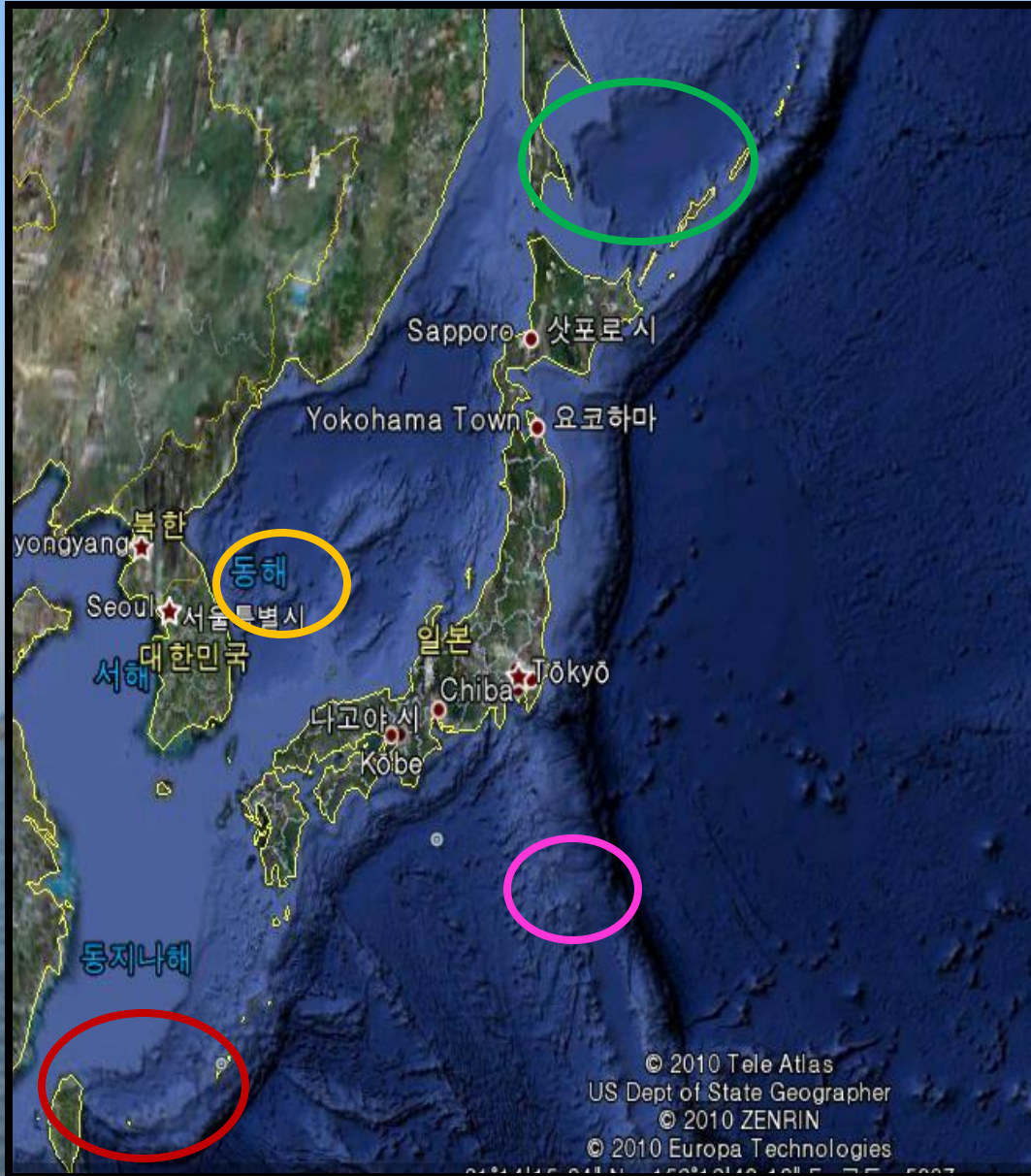
· 오가사와라는 16c 포르투갈에 의해서 발견됨



· 그 후 미국 / 영국 / 러시아가 이 섬을 방문하였고 발견될 때 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 졌다.

· 1840년 오가사와라 군도에 서양인이 거주함을 알림

< 근대 일본의 국경확정 >



① 북한계변

→ 쿠릴열도 / 사할린도

② 남변한계

→ 오가사와라 군도

③ 서변한계

→ 울릉도 편입실패

④ 서남변한계

→ 유구편입 / 대만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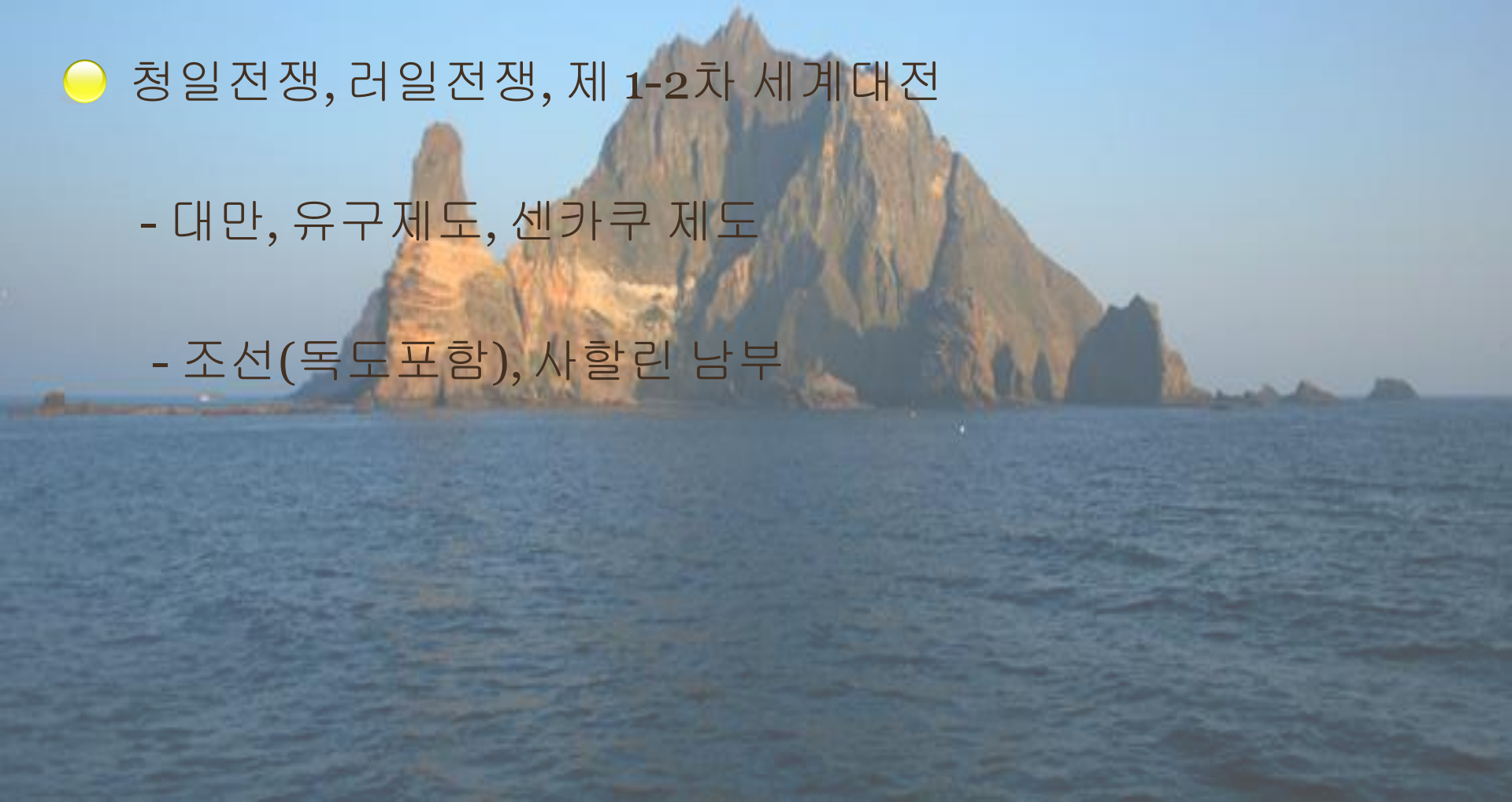
<근대 일본의 영토팽창과정>

● 일본의 내셔널리즘강화 → 점차적으로 영토확장

●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 1-2차 세계대전

- 대만, 유구제도, 센카쿠 제도

- 조선(독도포함), 사할린 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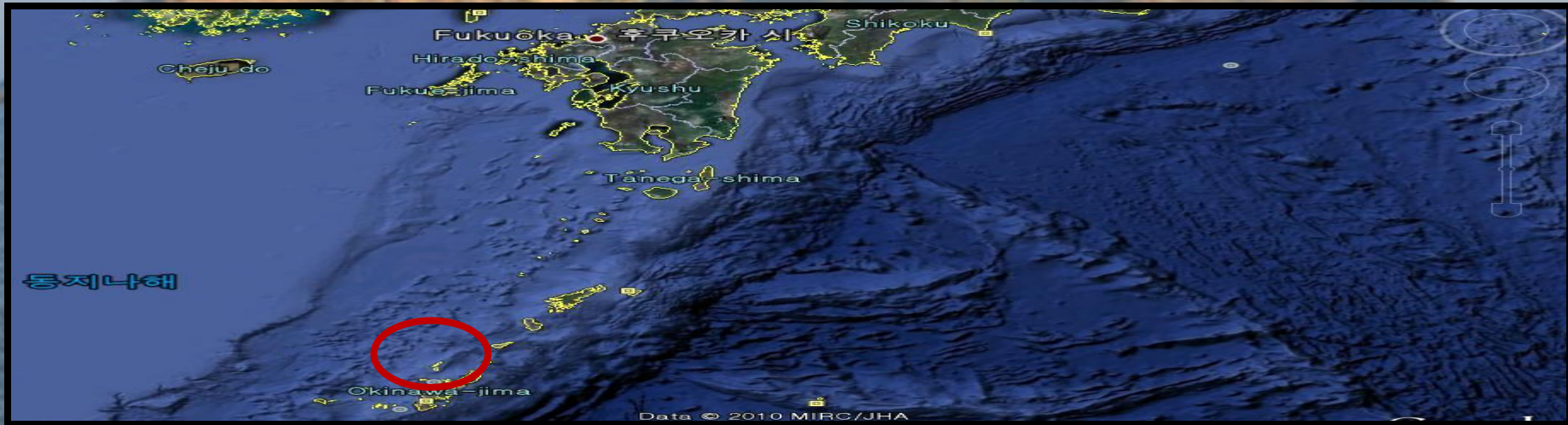
<일본의 메이지 정부>

● 정부수립 후 1869년 국정조사단을 파견 → 영토 침략의도 표시

하지만 울릉도 편입시도 → 실패

● 1871년 폐번치현을 단행 유구국 → 유구번으로 개칭하여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그 후 1879년 강제적 병합 이루어짐



<청·일전쟁>

- 1894년 6월 ~ 1895년 4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툼

<시모노세키조약>

- 청일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895년 4월 17일 청국과 일본이 일본의 시모노세키 에서 체결한 강화조약

- 내용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청의 종주권부인)

대만,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준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 대 만

- 청일전쟁시기 대만은 청나라의 군대가 대만에 상륙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에 복속시킴. 이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됨

● 요동반도

- 청일전쟁 이후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일본에 할양.

● 팽호제도(평후제도)

- 중국 복건성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에 있는 제도

● 센카쿠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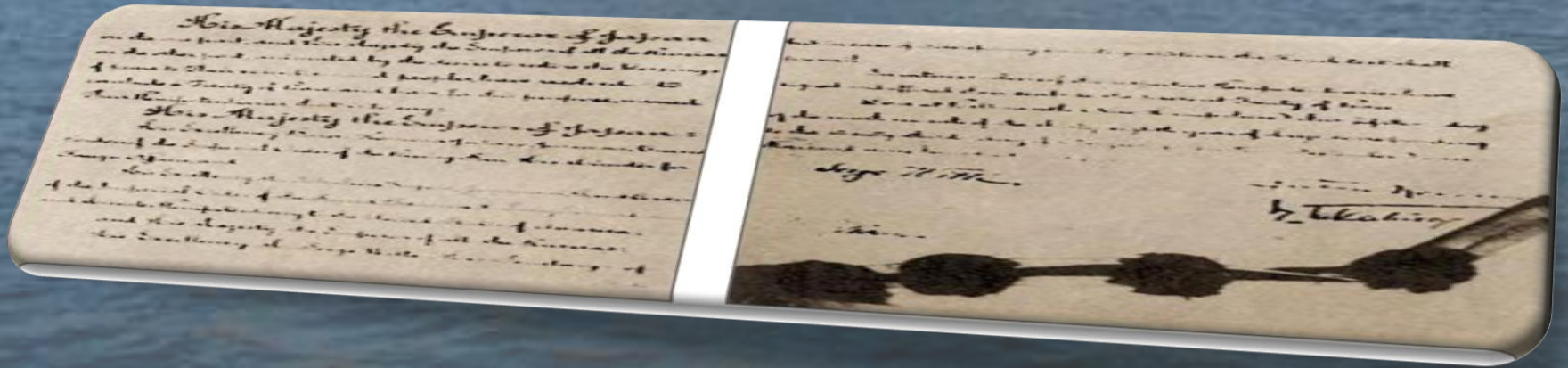
-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할양 받아 오키나와에 편입 조치

< 러·일전쟁 >

- 1904~1905년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
- 1905년 11월 외교권 박탈
- 1907년 8월 조선 내정권 장악
-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
-> 러시아로부터 사할린남부지역 분할 받음.

< 포츠머스 조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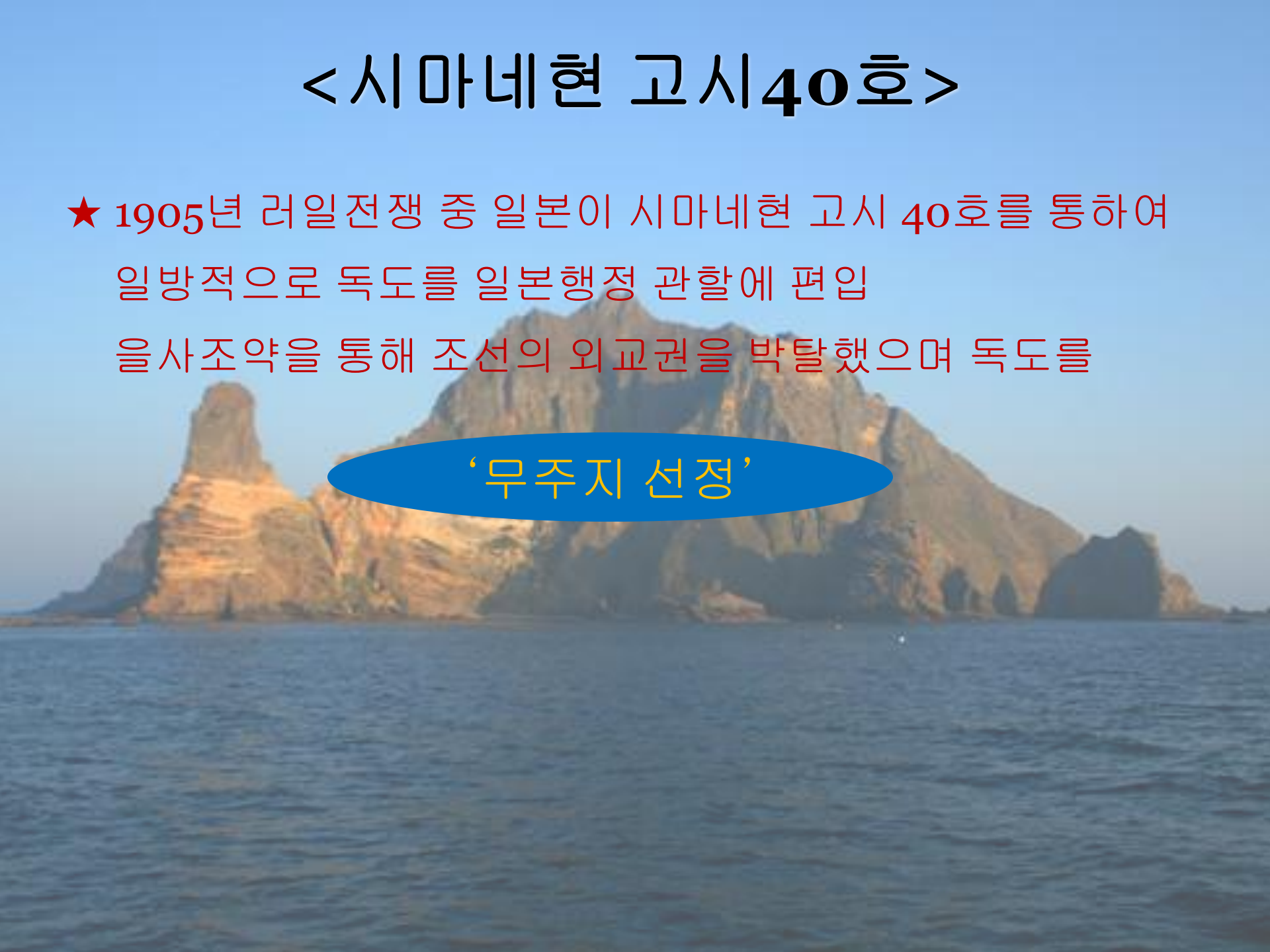
-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1905년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강화조약
조선주권강탈



<시마네현 고시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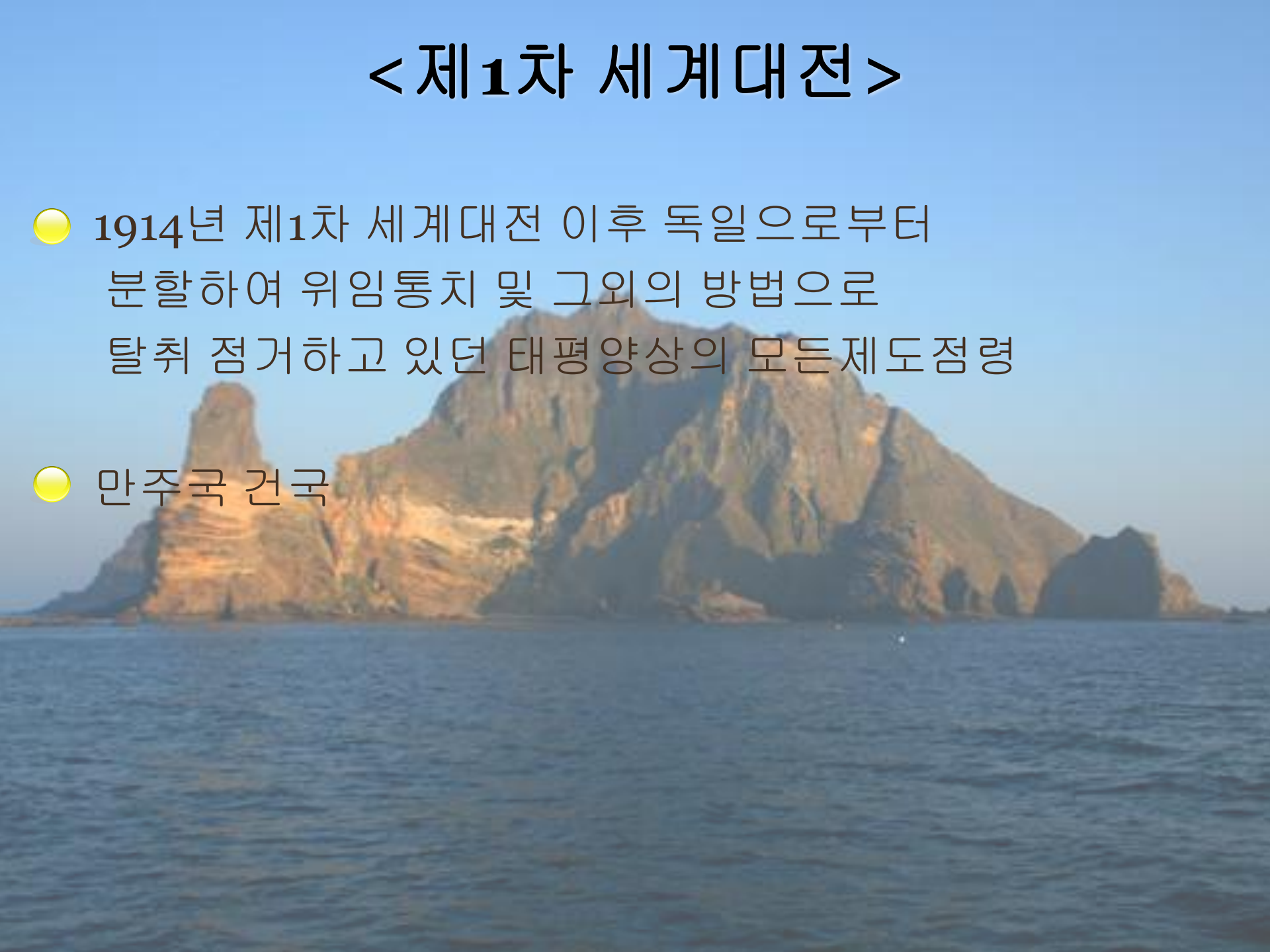
★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행정 관할에 편입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으며 독도를

‘무주지 선정’



<제1차 세계대전>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으로부터 분할하여 위임통치 및 그외의 방법으로 탈취 점거하고 있던 태평양상의 모든제도점령
- 만주국 건국



<제2차 세계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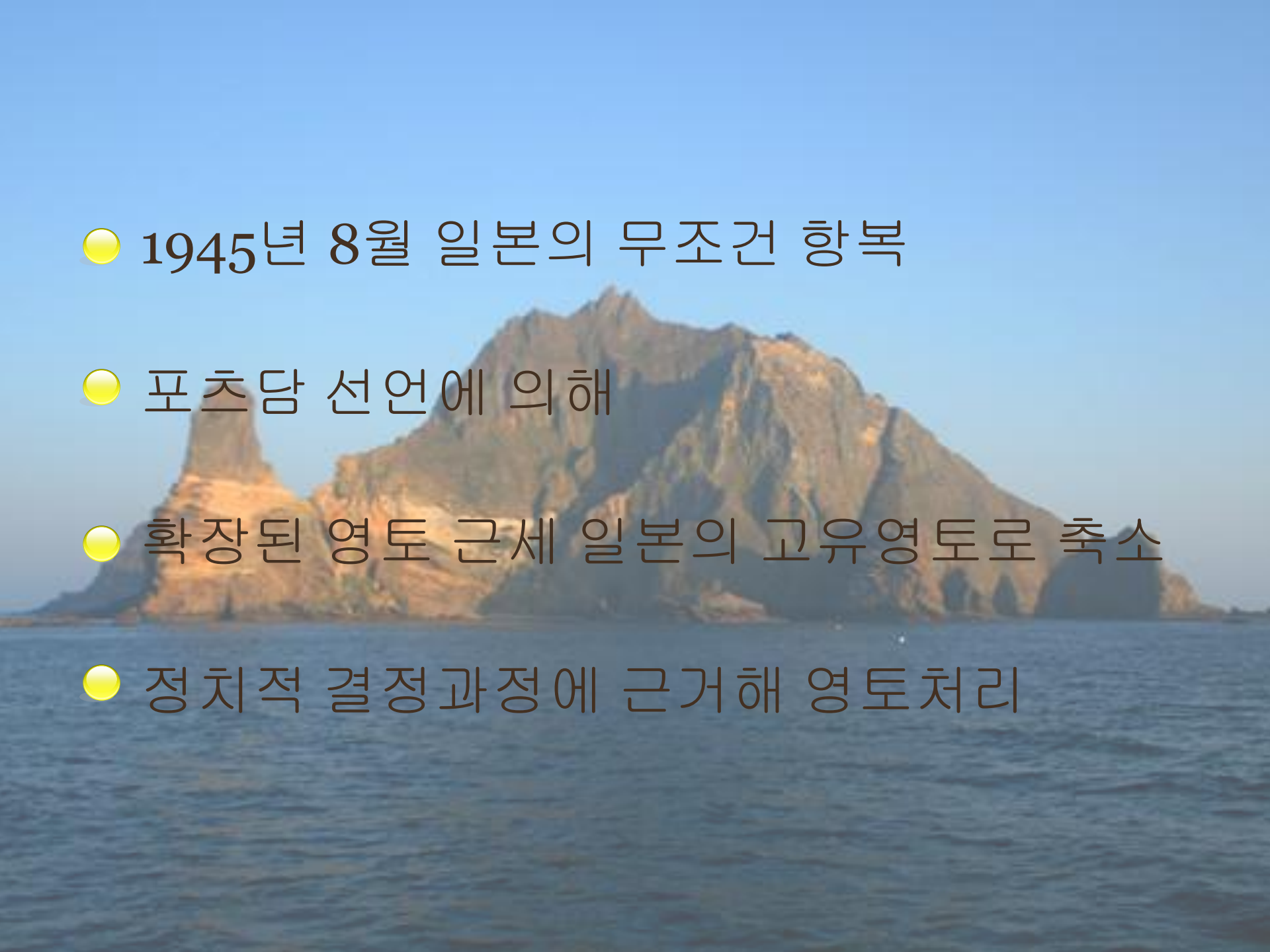
- 1941년의 독일·소련 개전,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거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이르는 기간의 전쟁.
- 일본이 패하기 전까지 동남아시아와 여러지역 점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처리> (대일평화조약1951.9)

- 알타회담
- 카이로선언
- 포츠담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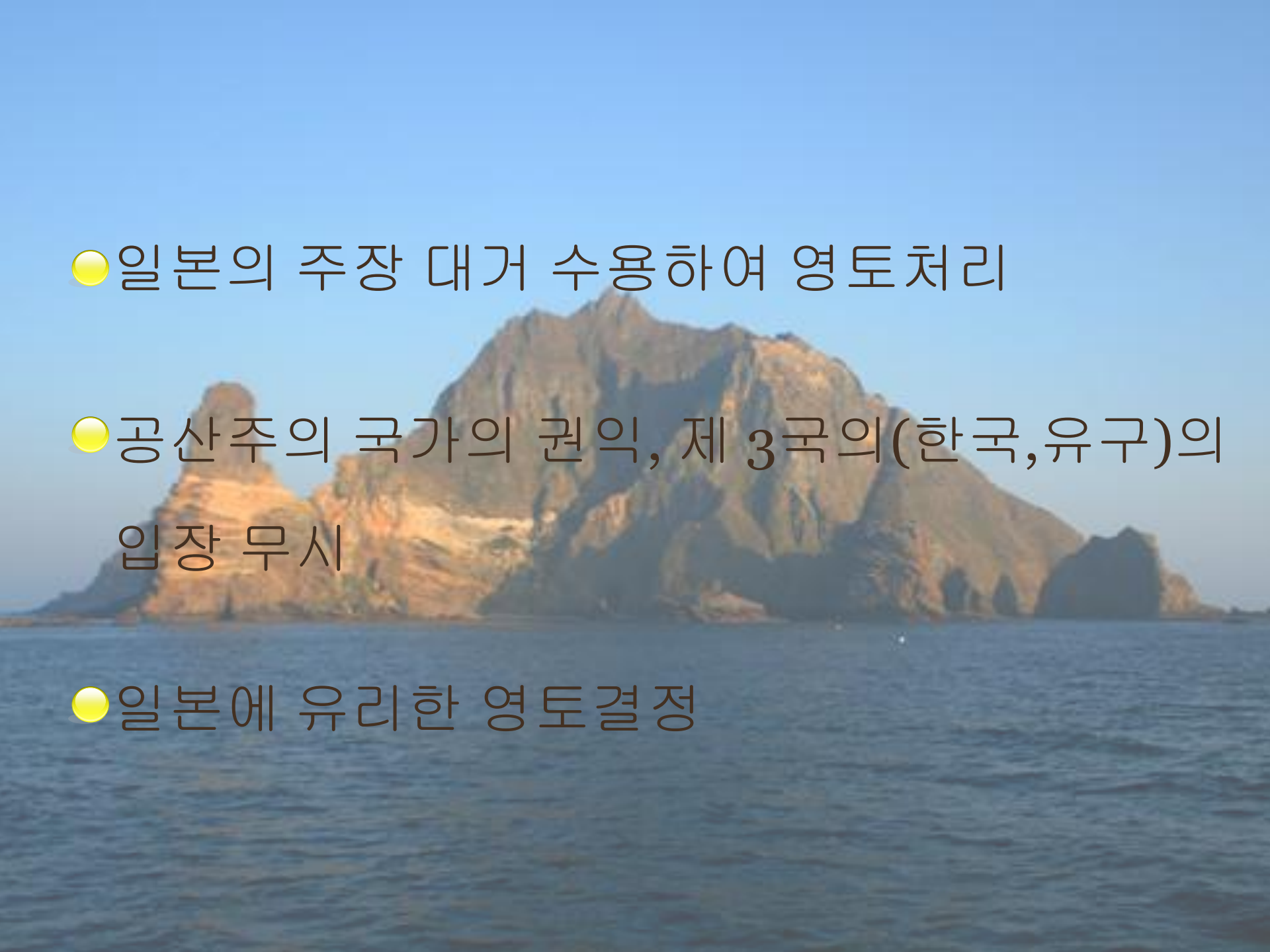
A large, rugged rock formation, possibly a sea stack or island, stands in the middle of a blue sea under a clear blue sky. The rock is dark and jagged, with some lighter patches. The water is a deep blue with gentle ripples.

- 1945년 8월 일본의 무조건 항복

- 포츠담 선언에 의해

- 확장된 영토 근세 일본의 고유영토로 축소

- 정치적 결정과정에 근거해 영토처리



- 일본의 주장 대거 수용하여 영토처리

- 공산주의 국가의 권익, 제 3국의(한국,유구)의
입장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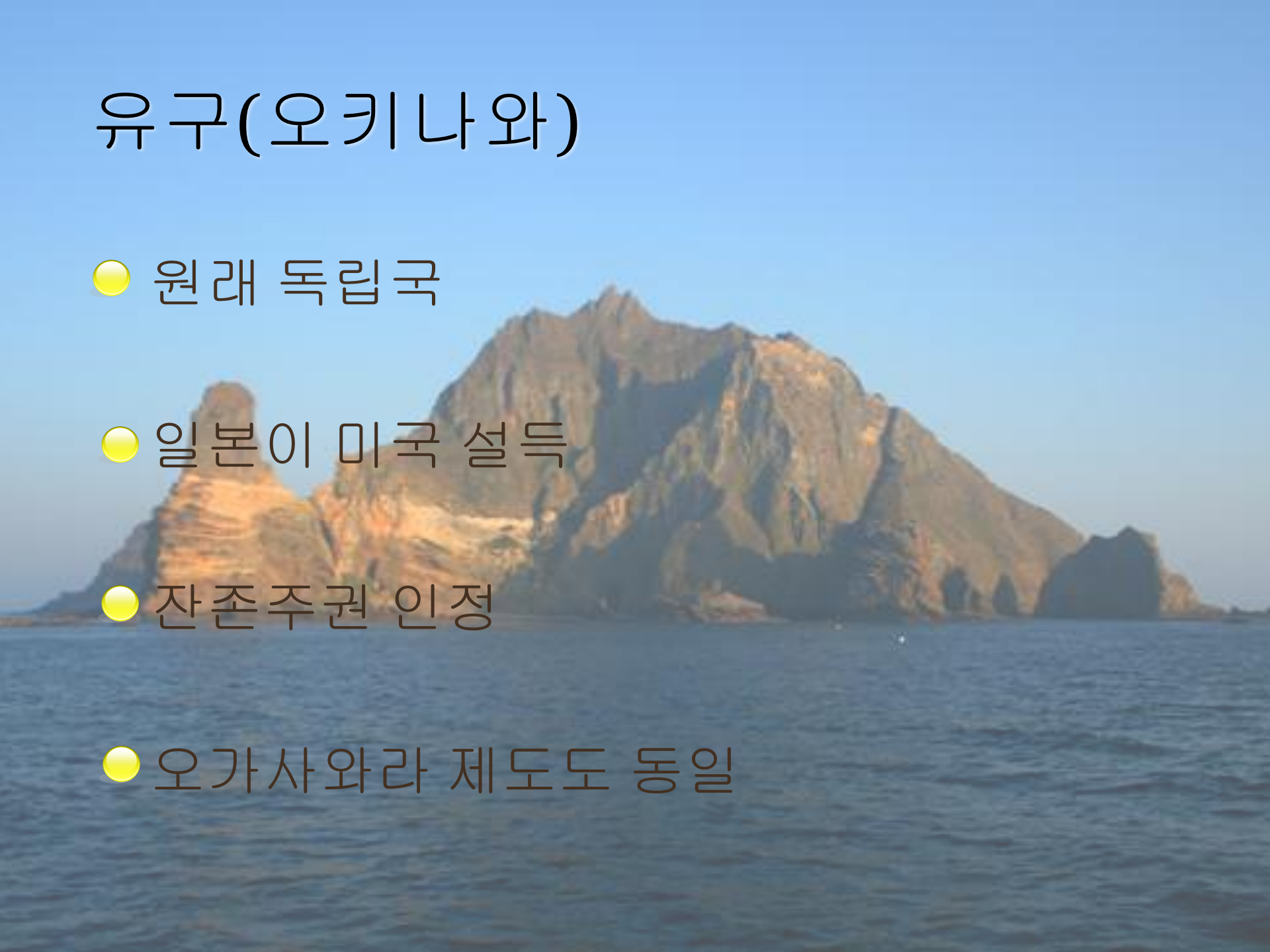
- 일본에 유리한 영토결정

독도

- 1차~5차 초안 독도 한국영토
- 6차 초안 돌연 독도 일본영토
- 7차~9차 초안 독도 언급 없음

유구(오키나와)

- 원래 독립국
- 일본이 미국 설득
- 잔존주권 인정
- 오가사와라 제도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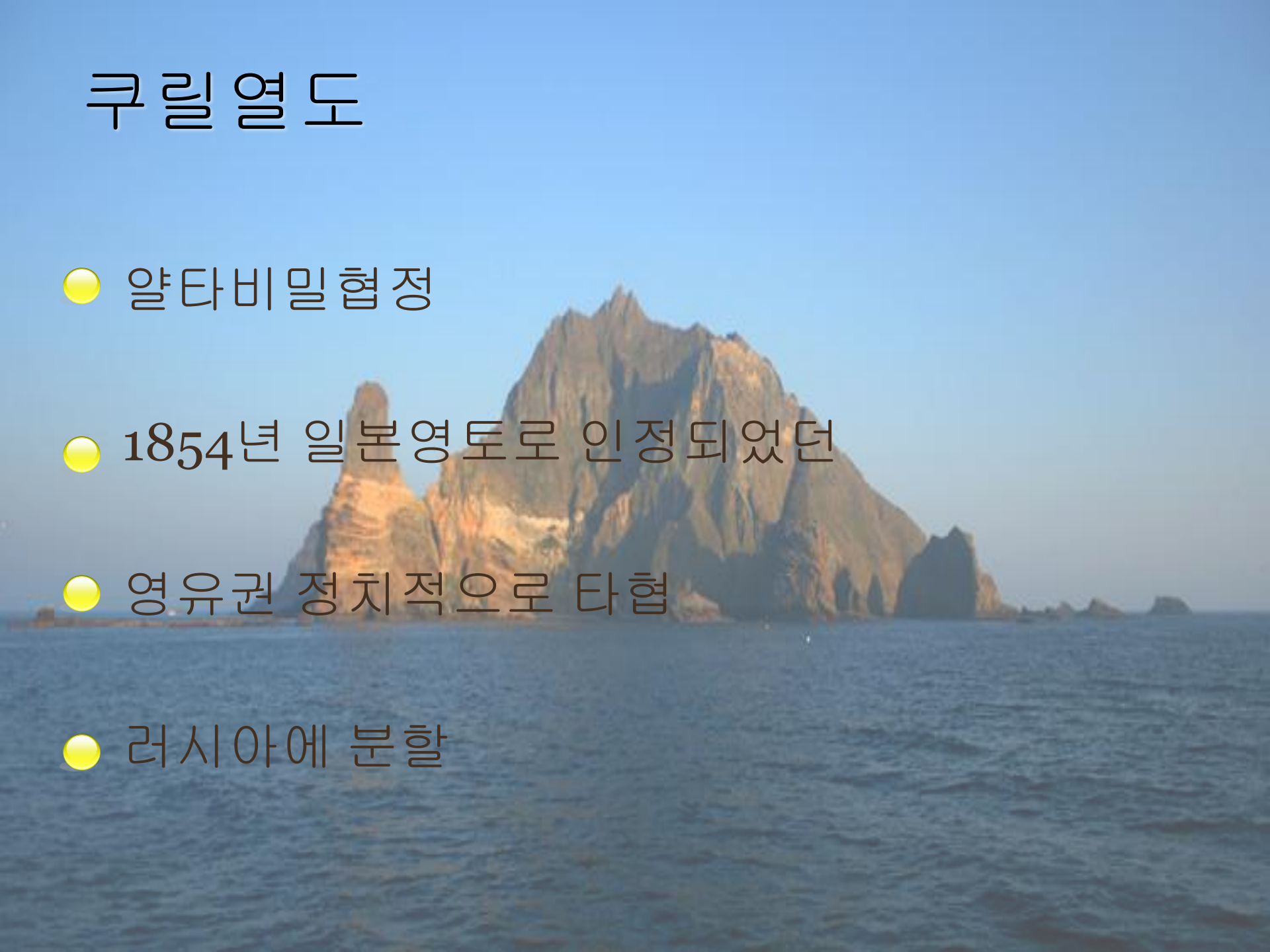


대만과 땡호도

-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어느 한 나라에게 주권을 넘겼어야 함
- 2개의 중국 모두 조약에 참가 거부
- 동시에 대만과 땡호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도 인정되지 않음
- 센카쿠제도의 소속 역시 영유권 주장 박탈

쿠릴열도

- 알타비밀협정
- 1854년 일본영토로 인정되었던
- 영유권 정치적으로 타협
- 러시아에 분할



문제점

- 조약이 설득력 있는 규정을 마련했나?
-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는 권리, 권원 및 이익을 인정받지 못함
→ 2국간의 평화조약체결
- 정치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적지 않음



● 영토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또는 애매하게 조치

→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남김

● 조약 후 일본 내셔널리즘 강화

● 전전의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우경화

→ 애매하게 처리된 영토조항에 대한 영유권 주장

< 전후일본의 영토분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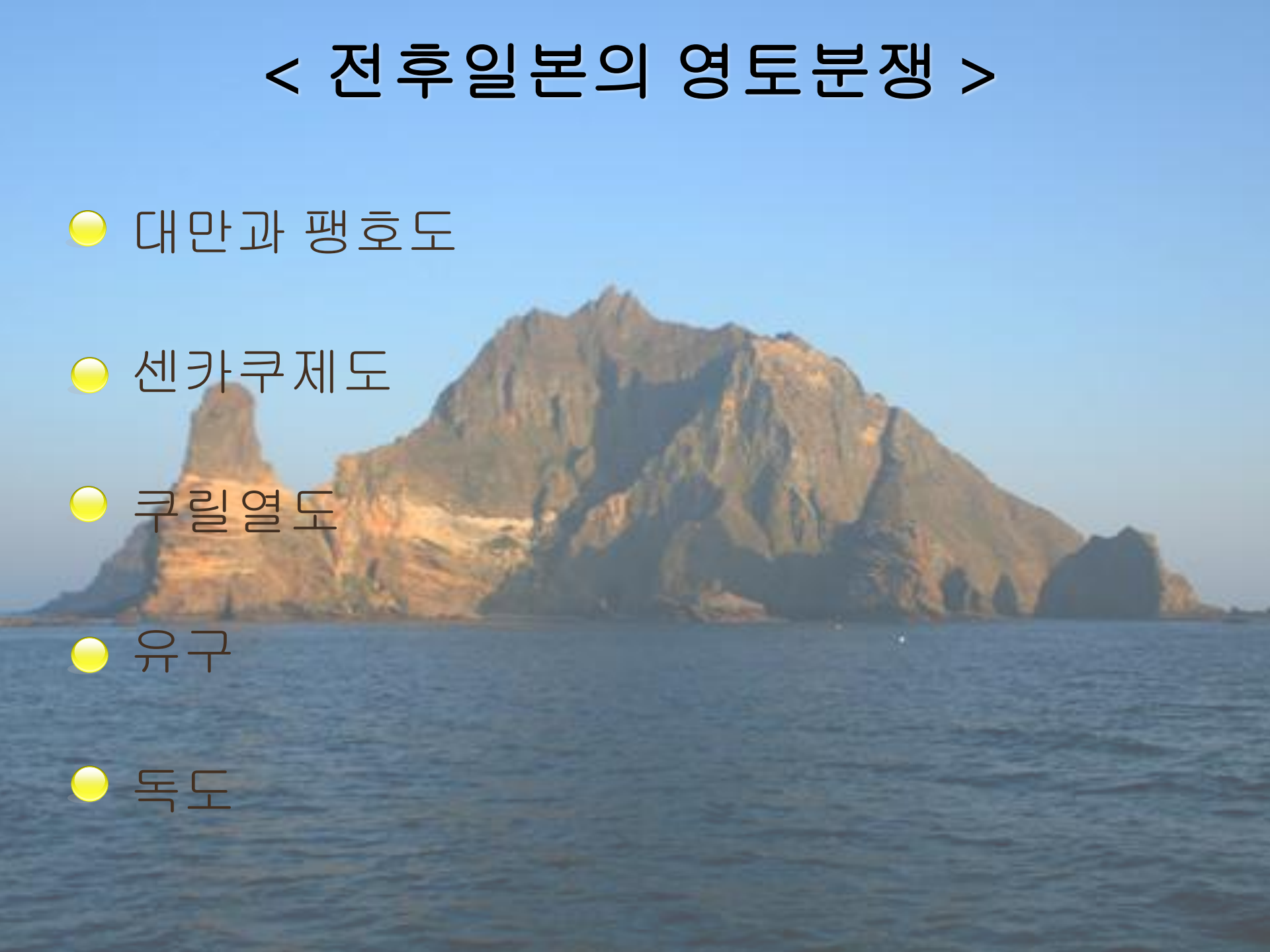
● 대만과 팽호도

● 센카쿠제도

● 쿠릴열도

● 유구

● 독도



■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 러시아: 반환 대상은 2차대전 후 강성한 해보마이와 시르틴 분
- 일본: 1855년 러-일 조약으로 일 영토 확인한 4개성 모두 반환
- 20억달러에 달하는 어채권



오키노토리

- 중국: 섬 아닌 바위
- 일본: 1980년대 콘크리트 보강공사로 주민 거주 가능
- 일본 국토 면적보다 넓은 40만km²의 EEZ 확보



센카쿠 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

- 중국·대만: 1534년 발견 이후 중국 영토
- 일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시 함께 반환
- 군사전략적·해상 교통, 석유·천연가스 등 부존자원 풍부

이승만 라인

독도에 대한
확실한 영토화

Sea of Japan

East Sea

Shenyang

Seoul

사비성
웅진성

Busan

Yokohama
Tokyo

Imper

Sea



Image © 2006 TerraMetrics

Image © 2006 NASA

©2005 Google

www.powercorea.com

Pointer 37°57'19.93" N 132°31'53.40" E elev -18 ft

Streaming 100%

Eye alt 824.94 mi

< 맺으면서 >

● 영토분쟁 - 1차적 근대내셔널리즘

2차적 정치적으로 영토처리

● 해결방안 - 리저널리즘을 통한 내셔널리즘의 약화

A large, rugged rock formation, possibly a sea stack or island, is the central focus of the image. The rock is dark and jagged, with some lighter-colored patches. It stands in the middle of a vast, blue ocean. The sky is a clear, light blue. The overall scene is serene and natural.

감사합니다